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농사기술 전수에서 공동체 구성으로

10  
10  
10  
10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 자정 · 불자리더 양성에 앞장

### 불교귀농학교로 시작... '늘품학교' 개교 예정 등 농촌 새 모델 제시

1990년 젊은 스님들의 수행단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불교 개혁의 선두에 섰던 도법 스님은 1998년 조계종 분규 당시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분규를 마무리 지었다. 도법 스님은 이후 남원 실상사로 내려가 도농공동체를 꾸려 불교귀농운동을 폈다.

실상사 주지였던 스님은 IMF관리체제 당시 경제위기로 늘어난 실직자들에게 실상사 1만여 평을 내주어 귀농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으로 이뤄진 삶을 지향해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였다.

1998년 제1기 불교귀농학교를 시작으로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가 탄생하며 이러한 의지는 본격적인 행보로 표출됐다.

인드라망은 근본도량 '실상사', 친환경농산물 판로인 '인드라망생협', 도시교류·문화·교육지원을 담당하는 '한생명', 중학교 과정의 '실상사 작은학교' '수련원 귀정사'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리산 산내면은 10년간 250여 명의 대식구가 정착한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 먹거리 생산부터 판매, 자녀 교육과 생태농업 교육까지 귀농을 넘어선 사회 대안 지역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단순한 귀농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정으로 농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인드라망이 진행하는 귀농 프로그램은 그동안 35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 현재 60% 가까운 귀농으로 생태자립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인드라망 귀농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서울 '도시민을 위한 불교귀농학교', 심화교육을 담당하는 '실상사귀농학교', 지역정착을 위한 '장기 체류형 현장귀농학교'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중 현장귀농학교는 2006년 개설돼 공주, 문경, 강화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10년을 맞은 인드라망은 귀농운동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또다시 부는 귀농의 바람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인드라망 귀농교육의 변모는 단순한 농사기술을 가르치는 귀농교육에서 공동체 구성을 유도하는 교육으로 변화다. 학생들은 교육 전 과정에서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일정과 주민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마을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기존 귀농교육과 더불어 점심 휴식시간에 마을사람들과의 교류시간이 제공되며, 하루 일과 후에는 마을구성원 모두가 '100대 서원 절 명상'을 통해 귀농의 서원을 키운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개강좌로 교육이 진행돼 자유로운 대답으로 실천경험을 쌓게 하며, 농작물 소득증대 등과 관련된 강좌도 진행한다.

인드라망은 최근 이러한 변혁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고 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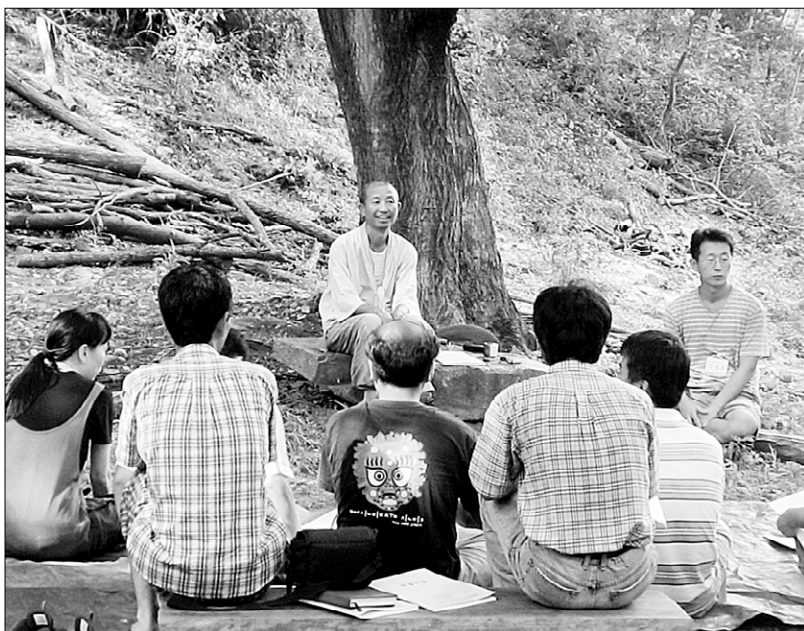
월 19일에는 남원 실상사 한생명 강당에서 '인드라망 귀농운동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좌담회를 열고 인드라망 귀농운동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망한다. 도법 스님과 이해경 실상사귀농학교장을 비롯한 귀농학교 동문 등이 모두 모여 인드라망 3단계 귀농교육 시스템 전반에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10년의 교육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드라망은 교육도량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40세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마을대학 '늘품학교'도 준비하고 있다. '늘품학교'는 남원 귀정사 부지에 2012년 개교 예정으로 이 곳에서 생태순환 마을 전문기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원 교원과 전원

1998년 겨울,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은 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19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운영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확인됐음에도 분쟁의 악습이 다시금 표출된 것이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3선 공방 다툼과 종단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총무원건을 접거사태는 한국불교사에 아픈 추억을 남겼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과 더불어 한국불교계는 또 다른 과실을 얻게 된다. 개혁의 바람으로 사회참여와 재가운동의 활성화라는 큰 물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10년을 맞은 2009년, 당시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 두 단체가 10돌을 맞았다. 열살이 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며 한 단계 도약하는 불교NGO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가운데)과 귀농 희망자들이 귀농학교에서 공동체 형성의 서원을 쌓고 있다.

학생제로 청년귀농자들은 공동체 생활로 마을대학 출범의 주체가 된다. 접수는 7월 20일까지다.

7월 15~18일에는 남원 산내면 일대에서 생명, 생태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인드라망 청년학교도 열린다. '심심(心深) 청춘 귀농을 꿈꾸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년학교에서는 귀농교육을 비롯해 지리산 숲길 걷기 등 생태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드라망은 '귀농 10년 동안 귀농교육에서 귀농정착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됐다'며 '인드라망은 귀농정착과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2)576-1886

서돈각 전 법무부장관, 박광서 물리학박사, 민병천 전 서울대총장, 김종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박세일 전 청와대정무수석, 안동일 변호사, 명호근 쌍용그룹부회장 등 '재가회의'와 '재가연합' 주요 구성원들은 1998년 조계종 분규사태 이후 '불교 바로세우기 연대'를 출범,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김동진, 이하 재가연대)의 모태를 이룬다.

1999년 3월 '비영리, 비정부, 비종단' 조직으로 청정교단과 재가 수행풍토 진작을 외치며 탄생한 재가연대는 달라이라마와 탁남환과 같은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참여불교' 운동과 '재가운동'을 결합한 재가시민운동을 펼쳤다. 참여불

는 그동안 교단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제고활동과 삼보정재 사유화 개선 운동 등 불교계 전반의 투명화에 앞장섰다. 일부 대행사찰의 불법불사 및 국고보조금 편취, 중앙종회의원 등 스님들의 비위를 밝히고, 주지입명과 같은 인사행정에서의 급급매수를 지적하는 등 날 선 비판을 해 왔다.

이러한 교단자정운동과 더불어 불교계 불교적 소양을 지닌 리더 배양을 위해 2001년 불교아카데미가 설립됐다. 불교아카데미는 리더스포럼, 마이리더스클럽 등 교양강좌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 양성에 주력했다. 전문 재가지도자 양성과정인 마이리더스클럽은 7기까지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 의사, 군장성 등이 망라된 350여명의 사회각계 지도자를 배출해 불교계 외연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각 불교단체 대표급, 실무진 등을 배출하는 불교인재 양성기관으로서도 자리매김했다.

이어 설립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교육현장을 비롯한 국가 공공영역에서 종교차별과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종교차별과 편향문제에 불교 및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2008년에는 범불교대회 DB를 제공하고, 종교편향 근절운동과 호법양성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등 참여불교 정신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안으로는 교단 자정을, 밖으로는 불자리더 양성의 요람역할을 해 온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0년을 맞아 다시금 재가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재가연대는 6월 17일까지 10주년 설문 조사를 통해 1300여 명의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활동평가와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간다.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창립 10주년 주간으로 선포돼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재가연대는 6월 1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회원과 함께하는 사랑방 영화제'를 열고 우연히 남관도우미가 된 오케스트라 첼리스트와 배태랑 염문사의 이야기를 담은 '굿바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추모열기와 동양적 생사관에 대해 조명했다.

이어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종교개혁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종교와 권력의 상관관계, 종교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불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6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는 10주년 기념 회원 체육대회가 열려 회원가족 및 리더스포럼을 거쳐간 졸업생들을 한데 묶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가연대는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다. 사회에 신뢰받는 청정교단이 되도록 비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불교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02)2278-3417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진 상임대표(가운데) 및 임원진과 회원들이 재가운동의 새 비전을 밝히고 있다.

교재가연대의 등장은 민주화운동과 생명운동으로 한정됐던 불교계가 시민사회로 진출했다는 신호탄이었다. 재가연대는 94년 참여연대 창립 이후 한국사회에 울트고 있었던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으로, 불교계 내부에 일면 사회참여 열풍의 물꼬 역할을 했다.

재가연대는 현재 산하에 '교단자정센터' '불교아카데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대 기관을 주축으로 교단 개혁 및 종교인권보호, 인재육성 운동 등 다양한 불교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1999년 설립된 '교단자정센터'는 종단 갈등 및 정부부패를 밝히 청정한 교단운영을 정착시키는 재가연대의 상징적 기관으로 자리했다. 종단 투명화를 꿈꾸는 터전이 된 '교단자정센터'

## 사과문

종목스님의 수사논문 (『初期禪思想史의 연구』-敦煌本增經を中心に-)을 유진은 저자의 허락 없이 완역하여 『돈황본육조단경비교연구』(경서원, 2009)의 pp.14~113과 pp.474~548에 수록하고, 또 『돈황본육조단경연구』(동, 2007)에 위 저자의 「단경연구사」를 요약하여 pp.70~80에 실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 탈종공고

- 사찰명: 덕수사  
법 명: 해권(이권영)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60번지
- 사찰명: 대용사  
법 명: 해명(신복덕)  
법 명: 해문(이정국)  
주 소: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동 466-22번지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현)대중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구)대한불교일산 조계종

##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보현사신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 정치평형 일침요법

###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 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침,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38개의 혈로 247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 기간: 1개월 과정 수강생 모집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보금정사  
문의: 053)474-5959 / 010-535-9797